

국내 최대 규모 '캔들라이트 콘서트', 순천만국가정원서 열려

1만 5천여개의 촛불이 수놓는 여름밤, 클래식이 전하는 감동과 휴식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6일 저녁 7시 40분,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별가든 밤 - 치유와 위로』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약 1만 5천여 개의 캔들라이트가 정원을 수놓으며 환상적인 야경을 만든다. 고품격 클래식 선율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

로 구성된 클래식 5중주 '앙상블 톤즈(Ensemble Tones)'가 올라, 클래식명곡과 영화음악, 지브리 OST 등으로 구성된 총 65분간의 고품격 공연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촛불이 수놓인 수많은 촛불이 어우러져, 순천만국가정원의 특별한 여름밤의 정취와 감성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야간 특별공연에 맞춰 정원의 야간 운영시간도 특별히 연장된다. 기존 저녁 8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은 이날 하루에

한해서 저녁 10시까지 2시간 연장되며, 입장권 발권은 평소와 동일하게 저녁 7시 까지 진행된다.

공연 관람은 입장객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좌석 없이 돛자리를 지참하여 잔디 위에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는 피크닉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서, 이번 고품격 야간 문화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 감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하



고, 정원의 사회적 치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구북구 화순군수, 요양병원 집중 안전 현장점검 참여
집중안전점검 75개소 완료... 안전 위해요소 제거에 총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구북구 화순군수가 직접 화순무지개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기관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화재 수신기 작동 여부와 소방 펌프실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했으며, 비상 발진기를 시험 가동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시설 내 대응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세심히 확인했다.

화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관내 중점 관리 대상 시설 75개소에 대해 건축물 구조, 전기·소방·가스 시설 등 안전 취약 요소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신속히 안내하여 바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이날 현장점검을 마친 후 "요양병원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쉽지 않아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북구 군수는 덧붙여 "하루·이틀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빠르게 찾아내고 조치하는 '실행 중심의 점검'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더불어, 결과에 따른 조치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행정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진도군 대표 고품질 브랜드 쌀인 선진농협미곡종합처리장의 '보배진미쌀(품종: 새청무)'이 202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전남 쌀의 품질 향상과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전남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 대상에 대한 정보 없이 심사(블라인드 심사 방식)가 진행된다.

심사 항목은 ▲밥맛 ▲품질 적합성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외관상 품위 평가 등 8가지 분야에 걸쳐 평가된다.

진도군에서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신규 진입을 위해 2020년 선진농협 알피씨(RPC) 시설개선 지원사업(30억

진도군, '보배진미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보배진미쌀, 진도를 넘어 전남 대표 브랜드 쌀로!

원)과 '브랜드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2억 6천만 원)을 추진하고 농가 교육, 계약재배, GAP 인증, 재배 포장 관리 등 생산 전반 걸쳐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2024년 알피씨(RPC) 양곡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3억 원)을 통해 품종 혼입률이 감소했고, 쌀 품위와 미질이 향상됐다.

'보배진미 쌀'은 최첨단 설비를 통해 당일 도정 후 출고해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곡은 관리, 함수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장에서 15일이 지난 쌀은 전량 교

체하는 제도(소비자 리플레)를 도입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서울, 제주, 광주, 목포 등에 연간 1,227톤을 납품하고 있고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등으로 연간 55톤을 수출하며 국제적인 명품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을 계기로 진도 쌀의 고급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농협에는 시상금 1,000만 원



과 함께 전라남도와 연계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장려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보성 특화 자원 연계 지속 가능 교육모델 구축 협력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은 지난 28일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보성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의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협약은 보성군과 지역학교 및 대학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보성군을 비롯해 ▲보성고등학교(교장 김문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순천대학교 농생명과학과, ▲목포대학교 국제문화학과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

으로 보성군의 미래산업, 청년 일자리, 특성화 교육과 연계된 실질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기반 지역인재 양성, ▲지역 특화 차(茶) 산업 연계, ▲농수산·문화관광 특화 교육,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라며, "보성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문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무안군 맛플무안물, 양파 기획전 누적 61톤 판매 30% 할인 기획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뜨거운 호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물'에서 진행 중인 '양파 소비촉진 특별 기획전'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본격적인 중만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단 4일 만에 28톤 이상의 무안양파가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파 소비촉진 기획전에서는 총 6,748건, 33톤의 양파를 판매하며 행사가 조기 종료됐었다.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지난 5월 26일 김산 군수가 주재한 양파 수급 안정 긴급 대책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으로, 군은 농



산물가격안정기금 2억 원을 긴급 투입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무안양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양파 30% 할인 혜택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소비에 있어야 생산도 가능하다는 말처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제30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

장흥군은 지난 5월 28일 관산읍 삼산방조제 일원에서 '제30회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다의 날'은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관내 수산인들에게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업인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바다의 날 행사는 '장흥 푸른 바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군민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흥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는 전남일보를 비롯해 장흥군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장흥군연합회, 장흥군 어촌계 연합회, 장흥군 어민연합회, 장흥해양구대, 바다환경지킴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은 해양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포스터 전시, 해양정화활동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우리 장흥 바다는 무산김 생산단지로 천혜의 보고"라면서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에 대한 의미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는 의미있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수 내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햇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지만 마음의 보이는 품같은 것. 저서
기억스레 생각해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면 색감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질 것.
몇 장이나 될까. 잠시. 마음. 리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진'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겠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